

전주 한옥마을서 펼쳐진 청년 버스킹 향연

‘NOW청년PROJECT IV’ 성료

2024 NOW청년PROJECT IV가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에 사단법인더문화 주최로 전주한옥마을을 뒀다.

2024 NOW청년PROJECT IV는 청년예술단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지역 사회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사단법인더문화가 기획, 직접 시설 자리가 없어져 희망을 잃어가고 꿈과는 멀어진 다른 일을 찾아야만 하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무대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해 올해 4회째 이어지고 있다. 이 공연에서는 최광호, 김은비, 김초은, 유정원 등 중증 장애 청년들로 이루어진 ‘파바밴드’의 참여로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어서 한옥 정원 콘서트 출연 및 인문밴드 레이로도 활동 중인 ‘이상옥 밴드’가 무대를 장식했다. 이상옥 밴드는 기타리스트 이상옥, 대금 이동준, 소리 이정인, 소프라노 김경은, 바이올린 신이나, 콘트라베이스 정효준 등 전북지역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파바밴드’가 신나게 공연의 오프닝을 활짝 열어 공연 소리를 듣고 한옥마을을 찾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뒀다. ‘나성에 가면, 가을은 참 예쁘다, 이젠 안녕’ 등을 듣고 뜻지리를 행겨와 그늘에 앉아 감상하는 관객들도 있었다. 뒤이어 이상옥 밴드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니 자전거를



2024 NOW청년PROJECT IV가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에 사단법인더문화 주최로 전주한옥마을 뒀다.

타고 오던 커피, 한복을 입은 외국 관광객들과 전동 바이크를 타고 오던 가족분들 등이 뒀다. 또한, 한옥마을에서 지정해주는 버스킹 장소가 해마다 변경되고, 올해 지정된 장소들은 실제로 공연을 하기에 번잡하고 면적이 매우 협소해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실내 공연장으로 장소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

NOW청년PROJECT IV 출연자들은 “NOW청년PROJECT IV에 참여하여 한옥마을로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린 거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공연은 지난 8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어 공연을 위해 연주자들과 음향 대여 업체와의 일정 조율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측의 승

인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한옥마을에서 지정해주는 버스킹 장소가 해마다 변경되고, 올해 지정된 장소들은 실제로 공연을 하기에 번잡하고 면적이 매우 협소해 공연을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실내 공연장으로 장소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

사단법인더문화 대표는 “NOW청년프로젝트 사업으로 무대 기회가 부족한 청년 예술가들에게 지속 가능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즐거운 관광과 전주의 사원한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한국전통문화진흥원과 JTJ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2024 한복 모델 선발대회 인 코리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K-한복 아름다움 세계에 알린다

‘한복 모델 선발대회 인 코리아’ 성료… 이진 씨, 대상 수상

한국전통문화진흥원과 JTJ전주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2024 한복 모델 선발대회 인 코리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4일 전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 종합경기장 특설무대에 치열한 경쟁 속에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한복과 한복의 고장인 전주를 알리고 우리 한복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전 세계 한복 글로벌화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심사위원에는 故 석주선 박사의 유일한 수제자인 이순화씨가 참여했으며, 지난 6월부터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 지역에서 모두 8차례의 예선을 진행해 전국적으로 한복을 뒀는 자리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된 대상의

영예는 이진(35세, 경기도 용인)씨가 안았다. 이진씨는 한복의 단아하고 절제된 미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최우수상 이수경(43세)씨 △금상 구지원(24세)씨 △시니어상 한금자(65세)씨 △은상 신은지(32세)씨 △동상 김보현(25세)씨 △포포제니상 이다비(24세)씨 △창의상 원현철(58세)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국전통문화진흥원 김도영 원장은 “조선왕조 발상지인 전주 한복의 글로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것에 의의를 느끼며 한복과 더불어 전통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수상자들에게는 전주시 한복홍보대사 위촉장이 수여되며, 대상, 최우수상, 시니어상, 금상 수상자는 두바이 아부다비 화보촬영 및 세종학당을 방문해 K-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SAMYANG

100

100

당신의 오늘에 삼양의 100년을

어제보다 오늘, 당신의 삶이 더 나아졌다면
그건 어쩌면 삼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삼양은 식품, 화학, 의약바이오, 패키징 분야에서 100년의 노하우를 담은 스페셜티 소재와 기술로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합니다.”

전주문화재단, 동문창작소1기 입주작가 ‘LIFE展’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이 운영하는 동문창작소가 오는 18~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기스막 1실에서 1기 입주 작가들의 창작 성과를 선보이는 결과 보고 전시 ‘LIFE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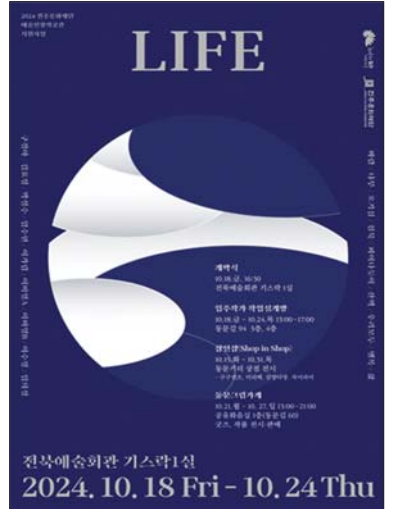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1기 입주 작가 9인(구경아, 김효정, 박성수, 엄수현, 이기림, 이미영A, 이미영B, 이수정, 임희성)의 1년 3개월에 걸친 창작 활동의 결실을 관람객들과 나눈다.

‘LIFE展’은 바람, 나무, 호기심, 침묵, 피어나듯이, 산책, 우리 모두, 행복, 삶’이라는 다양한 주제로 각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적 해석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문거리에서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작가들의 작업 공간을 직접 둘러볼 수 있으며,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지역 상점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삽인샵’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전시기간 중인 21~27일 공유화음실(동문길 60)에서 동문그림가게도 열린다. 동문그림가게는 전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시민 예술가들에게 작품 전시, 홍보, 판매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 지역 작가 9인의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원데이 클래스에도 참여할 수 있다.

최라기 대표는 “‘LIFE展’을 통해 동문창작소의 첫 입주 작가들의 창작 여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동문창작소 작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내장산 용산호 일원 ‘가을밤 별빛 음악회’ 18~20일 개최

정읍시가 본격적인 단풍 시즌을 맞아 가을 감성이 가득한 음악회를 선보인다.

이번 음악회는 내장산 용산호 수변공원 특설 무대에서 가을의 정취를 배경 삼아 ‘가을밤 별빛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음악회는 저녁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린다. 가을철 단풍을 즐기기에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취지다.

음악회 첫날인 18일에는 트로트 무대가 관객을 맞이한다. ‘트로트교과서’로 불리는 공훈을 비롯해, 경력과 열정으로 주목받는 반가희, ‘옛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인간 축음기’로 불리는 신미라가 등장에 트롯 특유의 매력을 선보인다.

19일에는 정읍 출신 가수 임수정과 함께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박주희, 소명, 김정호 등이 출연해 각각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으로 가을밤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발라드와 포크, 팝페라

등 더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강력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권인하와 포크록 밴드 여행스케치가 출연해 가을의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여기에 남성 4인조 팝페라 그룹 ‘카르티오’와 걸그룹 출신 가수 강혜연이 무대를 장식하며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용산호 모래사장에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앉아 휴식을 취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무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은은한 야간조명과 LED 무드등을 설치해 가을밤의 낭만을 한층 끌어올리려 한다.

또한, 공연을 관람한 후 후기를 시 공식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지역 특산품을 포함한 푸짐한 선물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도 준비되어 참여자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화수 시장은 “내장산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과 시민이 용산호의 멋진 가을밤 풍경과 함께 음악회의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희 기자